

Best Learner에게 듣는 학습 전략 노하우 4 - 좋은 학점 받기 전략 -

'좋은 학점'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바로 수업입니다.

이 호 정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생

1)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동기들이 듣는 강의나 소위 '서울대 명강의'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면 한 학기 동안 힘들지도 모릅니다.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같은 전공 수업이더라도, 강의식의 수업일 수도 아니면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 자신에게 맞는 수업방식을 가진 수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편, 다양한 학과에서 열리는 교양과목의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간단하게는 역사, 철학, 외국어,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기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교양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수업을 잘 선택하여 매 학기를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떻게 해야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앞에서처럼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골랐다면, 이제 이 수업들을 들을 수 있게 수강신청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강신청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수강신청을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신청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강신청은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수업시간표는 수강신청 기간 약 한 달 전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수강신청하기 훨씬 전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동기, 선배들에게 좋은 강의를 추천도 받고, 강의평가(www.snuev.com) 홈페이지를 여러 번 검색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강신청 기간에 임박해서 시간

표를 찢다면, 다음 학기에 어떤 수업이 개설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대충 주변에서 들어봤다는 강의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소위 '서울대 명강의' 외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들이 많고, 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계획할 것을 권유합니다. 한편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유명한 강의인 경우에는 수강신청 당일에 정원이 금방 차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바람직한 시간표 1안, 차선책 2안, 차차선책 3안을 준비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좋은 학점' 받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개인의 수업태도입니다.

1) 대학에서는 어떤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수강신청을 잘했다면, 다음으로는 수강신청한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흔히 고등학생 때까지는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지만, 대학에 와서는 굳이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학점을 잘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수업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수업에서도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당히 공부를 하면 학점도 적당히 나옵니다.

성실한 수업 자세는 매시간 출석하여 높은 집중도로 강의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강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끔 교수님들 중에는 수업시간 참여도 점수를 따로 가산점으로 부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평소 적극적인 수업태도가 습관이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편하게 부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따로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수업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불어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점을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의 성실하고 적극적이었던 수업자세를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학점' 받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팀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1) 조원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이 연구 토론하여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특히 팀원끼리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난 계절 학기에 팀프로젝트 성적이 중요한 전공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팀원 몇 명이 갑작스럽게 학기 중간에 수강을 취소하는 바람에 적은 인원만으로 과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나, 남은 팀원들도 다른 일로 바빠 팀프로젝트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성과를 내기 매우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팀프로젝트는 개인이 열심히 해도 다른 팀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팀프로젝트는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자주 모여 상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개인의 노력에 더하여 다른 팀원들도 모두 성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독려한다면, 팀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혹 조원별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팀프로젝트에서의 불성실한 자세를 지양한다면 세 번째 단계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팀 과제 발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팀프로젝트의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전달력입니다.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각적, 시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청각적으로 청중에게 접근할 때는, 팀의 결과물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발표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시각적인 차원에서 팀 내 토의내용을 짜임새 있게 보여줄 수 있는 PPT 파일 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내 교수학습개발 센터의 열린 강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노하우를 찾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네 번째 요소는 교수님과의 소통입니다.

1) 교수님과의 소통 수단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은 교수

님이나 조교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뵙는 것이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저는 주로 이메일을 활용해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가끔 이메일을 잘 보지 않으시는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조교와의 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계획서에 office hour이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정해놓은 시간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2) 교수님과의 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대화를 하면 될까요?

간혹 교수님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통'이란 이메일로 대단한 학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업에 대한 질문 사항, 예를 들면 과제로 내주신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 정중하게 이메일로 교수님께 여쭙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토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져서, 결국 과제 결과물도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대한 질문사항이 생긴다면 바로 교수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빠를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위와 같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 있는 수업태도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친절하게 답해주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교수님과의 소통을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